

국내 · 외 업계 동향

■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정

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관련된 산업자원부고시(약 100개)가 모두 통합되어 하나의 고시로 제정되며, 그간 KS규격에 의존해 왔던 압력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이 신설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.

이번 고시통합은 여러 부분에 산재되어 오던 기술기준에 대한 통일을 기하여 가스관련업계 및 기관이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을 보다 용이하고 일관성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.

■ 미국 마쉬&맥레넌, 세즈웍 인수

세계 최대의 보험중개사인 마쉬 앤 맥레넌사가 8월 25일 영국의 보험중개회사 세즈웍을 인수하였다. 세즈웍은 70개국에 290여 개의 사무소를 설치하고 원보험과 재보험, 컨설팅그룹을 운영해 온 유럽 최대의 보험중개회사이다.

두 회사가 합병함으로써 마쉬 앤 맥레넌사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브로커로 군림하게 되었다.

■ 아시아-태평양 리스크·보험학회 초대 회장 선임

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싱가포르 南洋대학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-태평양 리스크·보험학회에서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이경룡(서강대) 교수가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.

이번 이교수의 회장 선임으로 한국 보험학회 및 보험학자들의 위상이 제고되고, 보험대국으로서의 입지가 강화되었다.

■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이 최고

서울시 소방본부의 발표에 따르면, 올 상반기 전체 화재건수 4,460건 가운데 전기로 인한 화재건수가 1647건으로 평균 36.9%를 차지, 화재원인 중 1위를 차지하였다.

원인별로 살펴보면, ①전기 36.9%, ②담뱃불(21.1%), ③방화(11.7%), ④가스(10.2%), ⑤불장난(5.1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■ 제20회 아시아소방장협회 총회 개최

아시아소방장협회 제20회 총회가 10월 14~16일 일본의 福岡 씨호크호텔 & 리조트에서 열린다.

회의는 「21세기 아시아로-방재 유대」라는 테마로, 아시아 각국 소방방재기관의 협조, 상호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아시아지역 방재네트워크 만듦을 지향한다.

■ 풍수재 손실 240억불

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엄청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대재해로 인한 보험금도 급증하고 있다.

Swiss Re의 연간 보고서에서는 97년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, 그 중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은 240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.

우리 나라의 풍수재로 지급된 보험금은 미미한 실정이나,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에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으므로 업계의 자연재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위험관리와 상품개발이 요망된다.